

01 교회소식

주님의 눈물이 생명의 열매로...

인도 기독교TV 타밀어 채널에 매주 방송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미얀마·라오스 목회자 세미나 등 국내외 소식.

02 생명의 말씀

불의한 청지기

난해구절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날마다 주인의 소유를 늘리는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길을 알아본다.

03 기획특집

마음 안에 천국을 담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대로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삶 속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04 간증

"체험하고 나니 정말 믿음이 되네요~"

목자의 공간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대상포진 등 질병을 치료받아 영광 돌리는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793호 2017년 6월 1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세월이 지나
세월이 지나 이 땅에 맺혀진 구원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네
그 많은 눈물, 그 많은 순교
우리에게 열매가 되었네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주님의 섭리
아무도 느낄 수 없었던 아버지 사랑 임하네
세월이 지나 우리에게 임하는
아버지 사랑의 열매

많은 날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많은 눈물 흘렸지만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사랑
그 눈물이 지금도 이곳에 흐르고 흐르네

Copyright © 2017.1.10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이재록 목사 설교, 인도 기독교TV에 타밀어로 매주 방송



오는 6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GCN방송 협력방송사인 인도 기독교TV 방송국 굿뉴스TV 그룹의 남비카이TV(타밀어 채널)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가 방송된다.

남비카이TV는 타타스카이 등 인도 주요 가정용 위성방송 서비스와 인터넷TV 릴라이언스 지오(Jio)TV를 통해 스마트폰 기기로 손쉽게 시청할 수 있다. 타밀어로 된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프로그램은 프랑스 흘리갯 TV와 인도 푸두체리 주 아를바꾸GCN 등 여러 기독교 방송에도 공급되어 인도는 물론 주변국까지 전파될 예정이다.

지난 6월 9일부터 남비카이TV에서는 연인원 300만 명 이상 운집했던 인도 역사상 최대 최다의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와 이 목사의 대표 설교 '십자가의 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홍보 방송을 하고 있다(사진).

아동·학생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 교육부 주최 '교사 강습회'가 '권능'(요 14:12)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 4성전에서 개최되었다. 12일 저녁 7시 30분, 교육부 김태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개강예배는 아동주일학교 교장 조민경 전도사의 대표기도, 중부지방회 회장 길태식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강사 만민기도원 이복년 원장, 정구영, 이미영, 이미경, 김수정 목사, 빈금선 권사, 한주경 찬양선교사의 강의를 통해 교사들은 선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깊이 깨우침은 물론, 성경상의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에 대해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덕과 사랑, 이해와 용서 등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2017 교사강습회 교재

2017년 2차 미얀마·라오스 목회자 세미나 열려



지난 6월 6~7일, 태국 국경에 위치한 메사이교회에서 교단을 초월해 35개 교회 80여 명의 목회자와 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2차 미얀마·라오스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강사 이재원 목사(치앙라이만민교회 담임)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씩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를 토대로 천사와 그룹, 악한 영의 세계 등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과 십자가의 도 시리즈 설교 중 '참 믿음과 영생'에 대해 전했다. 참석자들은 깊은 영의 세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우치

며 이러한 말씀을 밝히 풀어주신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6일 밤에는 치앙라이만민교회 일꾼들과 함께하는 '캠프파이어'를 통해 미얀마, 라오스 목회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사역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은 흥미롭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야쓰 목사 (45세, 미얀마 요따야교회 담임)



세미나에서 증거된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천사의 특징과 사명, 조직과 질서, 그룹의 사명과 역할, 악한 영의 세계 등 처음 들어보는 말씀들이었지요. 말씀이 너무 깊고 달아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이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흥분되었습니다. 강사 이재원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치앙라이만민교회 일꾼들도 함께했는데 예배 자제나 옷차림이 매우 단정했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나 공손한 말과 겸손히 섬기는 모습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또한 이를

을 통해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기도생활로 축복받은 간증을 들으며 큰 도전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다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불의한 청지기

“...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
(누가복음 16:1~9)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지체되고 지장을 받는다면 이 또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모습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직분이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샅꾼 목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거나 명예나 권세를 바라보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머리된 자로서 가르치기는 하되 영혼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지 못하는 물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2절을 보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말하지요.

이는 사명을 맡고 열심히 충성했어도 어느 새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회복하거나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네 쫓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5) 하신 것처럼 사명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

3절 이하를 보면 불의한 청지기는 더 이상 청지기 사무를 못하게 될 상황이 되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이후 자신의 처지를 먼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빛진 자를 불러 기름 백 말을 오십으로, 밀 백 석을 팔십으로 증서를 고치게 하며 호의를 베풀지요. 장차 청지기의 직무에서 쫓겨난 후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볼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인에게 빛진 사람들’이란 영적으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들의 빛을 얼마씩 탐감해 주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만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곧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실제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세대, 즉 이 어둠의 세상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3.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닌 빛의 아들들

8절에 나오는 ‘빛의 아들들’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뜻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며 가르치니 그 믿음대로 말씀을 확증하는 역사가 나타나 양떼들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요.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구원의 도를 가르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을 택하기보다 주변을 의식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인간의 지식, 그 한도 내에서 자신이 믿어지는 만큼 가르치니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베풀 수도 없고, 혹여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것을 성도가 체험하더라도 하면 오히려 그것을 막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부딪치지 않을 만큼만 하고 필요하다면 그들과 손을 잡고 타협하지요.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잘 적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듣는다 해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녕 지혜롭다고 하십니다(마 10:28).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참된 중

은 양 떼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칠 뿐 아니라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마음에 활렷하고 영으로 변화되어 행함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진정 지혜로운 것이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4.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의 의미

9절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 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불의한 사람이라도 품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변화시켜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면,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이끌어 준 사람을 영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아직 육에 거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을 끌어버리고 믿음이 없다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도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해 주고 기도해 주며, 인내하며 바라봐 준다면 그들도 변화되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포용하되 자신을 배신할 가릇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된다면 선한 청지기로서 전 세계 만민을 품을 수 있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인의 소유를 늘려갈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영적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난해구절 중에 하나인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의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불의한 청지기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청지기 곧 불의한 청지기는 ‘샅꾼 목자’를 뜻합니다(요 10:12). 또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양 떼를 잘 양육하지 못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불의한 청지기’는 샅을 바라고 일하는 주의 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 떼의 머리된 일꾼으로서 자신이 맡은 기관이나 구역의 영혼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충만하지 못하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삶 속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다.

천국 소망으로 기쁨이 넘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 집도 없이 혼자 살면서 며칠을 굶은 채 노숙인으로 살아야 하다면 참으로 힘들 것이다. 그러나 수중에 거액으로 당첨된 복권이 있다면 어떨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힘들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눈물, 슬픔, 고통, 사망이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또한 천국에서 살아갈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힘들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천국 소망이 더해지는 만큼 행복하고 자신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

영원히 살아갈 자신의 천국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상급이 얼마나 쌓였는지, 장차 신랑되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어떤 고백을 드리며 행복하게 살아갈지 등 영의 것들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될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신 대로 오직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이 넘쳐나기 바란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달라진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오락을 취해 가니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할 틈이 없다. 기도를 해도 위로부터 은혜와 감동이 임하지 않으니 기도할 힘이 없어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결국 기도를 쉬게 되고 예배까지 소홀해진다.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니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깨우침이 없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 항상 듣던 이는 말씀이라 착각하고 잡념 속에 빠져든다.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고 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를 대신하여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 것을 사랑할 수 없다.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늘 뵈고 싶고 그리운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 아들이 깃들면 빛이 사라지고 빛이 밝아지면 아들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을 취하면 다른 한 가지는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세상 것이 즐겁지 않으며, 하나님 은혜에 가난한 심령이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깊은 기도 속에 이루는 성령의 교통함을 사모하고 죄악을 하나하나 벗어나가며 영적인 비밀을 깨우치는 체험 속에 행복을 느낀다.

또 영혼들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하다. 이러한 영적인 기쁨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길을 가다가 하늘을 바라보아도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 고백이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모든 분야에 성실이 더해진다

성품이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하는 일에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한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은 마지못해 하고 불평불만이 많으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오히려 화평을 깨기도 한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성실하다 할 수 없다. 주 안에서 성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므로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성실함이 배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을 대할 때도 마음 다해 늘 기쁜 낯으로 섬기고, 직장에서 밝은 얼굴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혹여 부족한 사람을 보아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 교회에서는 더욱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되 모든 사람과 화평 가운데 일을 이뤄가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모습이 교회에서는 성실하지만 가정이나 직장 등 다른 분야에서 불성실하다면 참으로 천국이 마음에 임했다 할 수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는 육의 마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영의 마음인지를 깨우쳐 보아야 한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음지이다” 말씀하신 대로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주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분야에 선한 마음으로 성실해야 참된 천국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과연 자신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성실하여 본이 되고 있는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봄으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참 마음 ■ 축복 2-6
- 십계명 5-9
- 사랑장 7-12
- 창세기 강해 1-7
- 공부 잘하는 비결 1-4
- 믿음을 축창하시니 8-14

GCN TV설교

- 회개에 합당한 열매 2 (이수진 목사)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2 (이미영 목사)
- 자기 발견 1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57 (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32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40 (정규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24)
- 권능 스페셜 1 ■ 마지막 때 13
- 창조와 과학 18 ■ English 1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9
- 내 마음의 찬양 30
- 모두 드려요 51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3
- 필리핀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5

June 6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6.18~6.24



“큰 빛으로 고통받던 저희 가정, 이제 행복합니다!”

2014년, 저는 계모임을 하다 배신당해 함께했던 이들의 빛까지 몽땅 떠안게 되었습니다. 빛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고소되어 3,400만 원을 갚아야 했는데 당시 제 월급을 전부 모은다 해도 13년이 걸리는 큰 금액이었지요.

자살까지 생각하던 중, 친척 인디라 집사를 통해 전도받아 그해 11월부터 첸나이만민교회(담임 한정희 목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토리샤를 운전하고 저는 직장에 다니며 빛을 갚느라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선한 가르침에 은혜받아 어찌하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성실히 빛을 갚아 나갔지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017년 2월 24일, 고소 건 처리를 위해 아침 일찍 법원에 가서 당회장님의 환자



라제시와리 집사 (40세,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기도를 받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갑자기 하얀빛이 내려와 제 몸을 포근히 감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눈물이 쏟아졌는데, 10분쯤 지나 판사가 저를 부르더니 고소 건과 관련해 제게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빛을 갚아 왔으니 더 이상 빛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과 함께 면제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딸 빠위뜨라는 4년 전 오른쪽 귀의 고막이 터져 수술받고 후유증으로 힘들어했는데, 지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 시 기도하던 중 불세례를 받아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아들 위제이는 학비가 없어 대학에 다닐 수 없었는데 지금은 복학했으며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즐겨하시요(사진 좌우).

전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이처럼 주 안에서 목자의 권능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대상포진이 신속히 치료되었습니다”

백보영 집사 (62세, 2대대 16교구)

지난 5월 5일 (금), 왼쪽 입술 아래쪽에 수포가 생기더니 오한이 들고 몸살 기운이 동반되었습니다. 8일(월) 아침에는 거울을 보니 수포가 왼쪽 입술과 볼을 따라 두피까지 번져 있었지요.

병원 진찰 결과, ‘대상포진’이라며 귀 속 에까지 염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겁이 나서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았는데도 그날 밤, 잇몸이 육신거리고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월 9일(화), 아내 이금순 집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 (행 19:11~12)으로 기도해 줄 테니 먼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자고 하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는 순간



▲ 기도받은 뒤 왼쪽 입술과 볼, 두피의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고 부기가 빠지며 딱지가 입혀진 모습.

위에 엎고, 당회장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게 해 주자 바로 오한이 사라지고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날인 5월 10일(수), 통증이 많이 감소되어 하루 종일 GCN방송을 시청하며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은 후 환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받았지요. 그날 저녁, 일찍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얼굴에 당기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른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거울을 보고는 환호성을 질렀지요. 물집은 새카만 딱지로 바뀌어 있었으며,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통증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소리치며 어린아이처럼 영영 울었습니다.

치료 사실 확인차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큰일 날 뻔하셨네요! 자칫하면 실명이 되거나 청력을 잃을 수 있었어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파열된 무릎 연골을 치료받아 운동이 너무 즐거워요”

진이레 자매 (19세, 고3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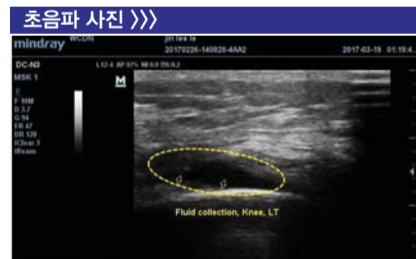


2017년 2월, 대학입시를 위해 달리기 종목을 연습하던 중 속도를 줄이기 위해 잔발을 치는데 왼발을 땅에 너무 세게 짚는 바람에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곧 낫겠지.’ 생각하고 견뎠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무릎을 아예 펼 수 없었습니다. 초음파 촬영 결과,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피가 고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달간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다녔지만 통증은 남아 있어서 훈련도 접고 재활운동만 하고 있으려니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4월 말에는 태권도 승품심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통증

을 참아가며 발차기 시련을 치렀지요. 하루하루 치료받고 싶은 간절함이 더해 갔습니다.

마침 5월 6일, 고등부 만남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성령의 불로, 불세례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무릎 연골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입혀 온전케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요. 순간 목자의 진한 사랑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무릎은 신속히 좋아지기 시작해 5월 10일에는 통증이 전혀 없었고, 뛰어보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다. 할렐루야!



▲ 기도받기 전 : 좌측 슬관절 안에 연골파열로 인해 혈종이 보이고 있음.



▲ 기도받은 후 : 연골파열로 인한 혈종이 없어짐.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지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안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